

[생활과 윤리]

1	④	2	④	3	②	4	⑤	5	④
6	①	7	①	8	③	9	③	10	③
11	④	12	⑤	13	①	14	⑤	15	⑤
16	⑤	17	③	18	①	19	②	20	①

01. 나는 실천 윤리학, 가는 메타 윤리학에 해당한다. ⑤ 따라서 실천 윤리학 입장에서는 메타 윤리학에 대해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지침 제공을 간과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02. 사상가는 칸트이다. ⑤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칸트의 도덕법칙에 부합한다.
03. 갑은 도가, 을은 유가의 죽음에 대한 입장이다. ② 도가는 죽음에 대해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듯 초연할 것을 강조한다.
04. 토론의 쟁점은 안면 인식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 찬반여부이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05. 소전제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므로 이에 대한 반론은 ④번이다.
06. 갑은 가치중립을 주장하는 야스퍼스, 을은 가치개입을 주장하는 하이데거이므로 기술의 수단성을 강조하는 ④번이 야스퍼스의 입장으로 타당하다.
07. 롤스의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정치체계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08. 음식윤리에 대해 갑은 도가의 입장, 을은 유가의 입장을 취한다. 유가에서는 음식 섭취도 인격수양의 일환이라고 본다.
09.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과 지속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칸트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필요악이라고 보지 않는다.
10. 갑은 생명 중심주의자인 레오폴드, 을은 생태중심주의자인 테일러, 병은 동물 중심주의자인 싱어이다. ㄷ. 레오폴드와 테일러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본래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본다. ㄹ. 테일러와 싱어는 개체론자들이다. 따라서 개체의 선이 공동체의 선보다 우선한다.
11. 갑은 도가의 입장, 을은 불가의 입장이다. 불가에서 고정된 영원한 실체는 있을 수 없으며 둘다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한다.

12.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기술에서 발췌된 글이다. 참된 사랑은 학습과 노력으로 계발되는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13.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소유권의 양도없이 소유권이 보장되고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14. 직업윤리에 대한 순자와 플라톤의 입장이다. 순자는 직분을 구분하는 도덕적 기준을 예라고 보았으며 플라톤은 세계급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15.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두 사람 모두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정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자유롭게 이행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16. 엘리아데의 주장이다. 그는 성스러움을 믿지 않는 인간도 종교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다.
17. 예술에 관한 목자와 순자의 관점이다. 목자는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음악은 사치라고 보았으며 순자는 인격도야를 위한 음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8. 원조에 관한 롤스와 싱어의 주장이다. 싱어는 원조의 결과와 주체의 형편을 고려한 조건부 의무를 강조하였다.
19. 원효의 일심 사상이다. 갈등 해결을 위해 다원성과 조화를 강조한 것이 원효 사상의 핵심이다.
20.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